

담양군,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비대면 방식인 '웹이나(웹+세미나)' 형태 진행해

메타로드영농조합법인 카페인 히어로하우스 운영

담양군은 지난 9월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공동주최한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메타로드영농조합법인(대표 추창호)이 미인종 일반 경연체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경진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제고와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인 '웹이나(웹+세

미나)' 형태로 진행했으며, 농촌융복합 경연체와 지자체 등 약 1,800곳 중 각 분야 전문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곳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최종 심사를 통해 대상 4곳, 최우수 5곳, 우수 7곳, 장려 4곳을 선정했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메타로드영농조합법인은 2014년 설립 이후 담양군 주요 관광지인 메타세쿼이아길 일대에 농촌체험형 카페인 히어로하우스를 운영하며 관광객에게 불거리와 먹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군 자체 육성 품종인 죽향 딸기를 이용해 딸기잼빵과 딸기쿠키 등 차별화된 가공품을 만들어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내는 등 성공적인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이뤄냈다. 죽향 딸기를 육성한 농업기술센터 이철기 소장은 "우리 담양 고구 딸기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히어로하우스는 죽향딸기 테마 융복합 거점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지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나주 영산대교 '높이 3m이상' 통행제한 12일부터

17개 시내버스 노선 영산교 방면 우회 조정



나주시가 국도 13호선에 가설된 영산대교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교량 보수를 위해 대형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나주시는 오는 12일부터 '높이 3m', '중량량 20.1t'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영산대교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7개 노선을 운행하

는 시내버스를 비롯해 시외버스, 고속·전세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차량 등은 영산대교 대신 영강사거리를 경유해 영산교 방면으로 우회해야 한다. 영산대교 통행 제한으로 시내버스 노선도 '영강사거리-영산교(홍어거리)-선창길-석산길-울정-영산포터미널' 순으로 조정했다. 단,

높이 3m이하의 순환버스 노선은 기존과 동일하게 영산대교를 경유한다. 지난 1972년 준공된 영산대교는 영산강을 가로질러 나주와 영암·해남·강진(남부) 지역을 잇는 교통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반백년 가까운 세월 속에 교량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보수·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이뤄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주시는 그간 하중 20.1t이하, 속도는 시속 50km이하로 통행 제한을 실시해왔지만 더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3m높이제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영산대교 통행 제한으로 예상되는 영산교 구간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와 교통신호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김장채소 재배 관리 당부

배추, 초기 생육 왕성해야 결구 좋기 때문에 관리 필수적

화순군은 김장철에 맞춰 고품질 김장채소를 생산하기 위해 철저한 재배 관리를 당부했다. 배추는 초기 생육이 왕성해야 결구가 좋기 때문에 상품성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 관리가 필수적이다. 심기 전 퇴비 등 유기질 비료를 충분히 사용해 밑거름을 주고, 심은 후에는 웃거름을 15일 간격으로 3~4회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첫 웃거름에는 10a당 요소 7kg을 시비하고 2회부터는 연화거리 7~8kg와 함께 요소 8kg정도를 시비하면 된다. 이때 중경과 제초를 겸하여 밭 표면을 긁어주면 비료가 땅속에 묻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배추는 다량의 수분을 요구하는 작물이라 토양이 건조하면 석회결핍증과 같은 생리장해가 발생하고 구가 작아지므로 수분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무는 파종 후 20일에 포기 사이에 10a당 요소 11kg과 연화거리 8kg을 1차 추비하고, 1차 추비 후 15일에 이랑 어깨 부위에 생육 상태에 따라 1차 추비에 준해 시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온다습, 고온건조, 질소·칼리 과다 시에는 석회와 붕소가 잘 흡수되지 않아 결핍증상이 잘 나타난다. 이때는 생육 초기부터 2~3회 연화칼슘 0.3%액을 엽면살포하면 되며, 가을철 주요 해충으로는 배추좀나방과 배추흰나방이 있다. 배추흰나비는 유충일 때 약효가 잘 나타나므로 살충제 1~2회 살포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례군, 수해복구예산 3324억원 확보

재난지원금 지급·수해복구 총력 기울여

구례군은 지난 달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 총 3,324억원의 특별교부세와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지난 9월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군수를 비롯한 많은 군민들이 대통령, 국무총리, 여야 당대표, 서동용 국회의원 등에 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중앙에 정부지원을 지속

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그 동안 군에서는 피해를 입은 농·축·임업 및 집수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였고, 수해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28일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호우피해 진상조사를 위해 손해사정

인을 통한 용역과 문화예술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정비 및 군 재정이 어려워 지연우려가 있었던 자력복구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한국에너지재단 협약을 통해 도배·장판 지원(가구당 330만원 상당), 군·중앙 재난지원금(가구당 300만원), 희망브릿지 수재의연금 지급, 재민 임시거주시설 무료 제공(50동), IBK 협약을 통해 5일 시장 상가 보수 등 피해주민 지원에 민관이 함께 힘을 쏟았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이사회 개최

추가경정예산 반영·2021년 본예산 초안 마련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이사장 유근기)이 지난 9월25일 제2회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재단의 본격적인 교육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2021년 본예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은 타 장학재단과는 다르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사업을 교육 목적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재단의 전신인 미래교육협력센터에서 지향점으로 삼았던 마을교육공동체 중심의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재단과 민관

학의 협의체계 구성 등 지역교육발전사업을 위한 협업 제반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기부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와 함께 기부금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유근기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일지라도 곡성만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해 곡성군의 미래를 준비하여야 한다"라며 교육을 통한 지역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장성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실시

장성군이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기폐차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한다. 3.5톤 미만은 최고 210만원까지, 3.5톤 이상은 최대 740만원까지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10월 5일부터 13일까지다.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업무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 내 군청 환경위생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중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다. 군은 신청 차량 가운데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기동취재본부**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